



김민석 총리, 국무총리실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 홍보 당부

- 김 총리,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받아 -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6일(화) 오후 3시,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, 김영수 국무1차장, 김용수 국무2차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주요 간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.
- 김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공직사회의 긴장을 가져왔고, 국민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으며, 총리실 업무보고가 각 중앙행정기관별 업무보고로 확산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평가하였다.
 - 아울러, 총리실 공직자들의 애국심과 사명감, 열린 사고를 높이 평가하면서, 업무보고를 통해 총리실이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고 어떤 것을 변화 시킬지 살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어진 총리실 주요 부서장들의 업무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관심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응답과 함께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당부를 전달하였다.
 - 특히,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공개를 강조하였고,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두시간 반을 훌쩍 넘겨 세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.
 -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직원들에게 생중계되었고, 총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를 편집하여 총리실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.

- 김 총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, 지금까지 잘해오던 일들을 잘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간 꼭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,
- 특히, 가능한 한 국민들에 대한 공개를 넓혀 가는 적극적 “홍보”를 당부하면서 총리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 등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.
- 또한, 금번 업무보고에 이어 6개월, 1년 뒤에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5년 내내 업무보고가 계속될 것이므로, 그 과정에서 각 기관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, 공직자들이 기억도 못하는 일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,
 - 6개월 뒤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관련 변화를 꼼꼼하게 챙길 뿐만 아니라, 공직자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
- 국무총리실은 오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 이어 1.9(금) 경제인문사회 연구회(이하, 경인사연), 1.12(월) 5처(인사/법제/식약/데이터/지식재산처)+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며, 특히 9일 경인사연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두	(044-200-2048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	(044-200-2052)

